

홈 > 뉴스 > 뉴스 > 경제

‘엄마 주먹밥’ 미래먹거리 선도

고성군 ‘의농식품’ 개발

2017년 01월 25일 (수) 20:47:18

이대형 기자 ☎ 565631@hanmail.net

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식품개발과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‘엄마표 주먹밥’을 개발해 미래먹거리 시장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급변하는 농식품 트렌드에 맞춰 ‘의농식품’으로 개발해 쌀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.



개발 중인 ‘엄마표 주먹밥’은 쇠고기, 옥수수, 꾸지뽕을 주재료로 하고, 달걀, 우엉, 당근, 오이 등 부재료를 더해 모양낸 밥 요리다.

▲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식품개발과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‘엄마표 주먹밥’을 개발해 쌀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있다.

정성가득 잘 만든 ‘엄마표 주먹밥’은 1·2차 시식을 통해 요즘 유행하는 도시락과 연계해 간편함을 살린 형태로, 여러 가지 재료들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기호별로 골라 먹을 수 있도록 했다.

특히, 꾸지뽕과 옥수수로 만든 주먹밥은 맛이 조화로워 건강을 지향하는 분들의 기호에도 만족스럽다는 평이 나왔다.

농식품개발과는 계속적으로 주먹밥 레시피를 개발할 예정이며, 체질별 스토리를 적용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고성 대표 ‘의농식품’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.

이렇게 개발한 엄마표 주먹밥은 기술 이전해 소비자가 원하는 틈새 소비시장을 공략, 농가소득향상 맞춤형 의농식품이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.

농식품개발과 김진현 과장은 “새롭게 농식품시장의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는 의농식품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고성군이 ‘대한민국 농식품 1번지’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© 경남매일(<http://www.gnmaeil.com>)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| 저작권문의

☐ 인쇄하기 ☒ 찜하기